

中 ‘난징대학살 기록물’ DB로 구축한다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맞춰 전범 재판 관련 기록도 포함 日 “유감... 정치적 이용 안돼”

중국 최고 난징대학살 기록물이 유네스코(UNESCO·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 대규모 ‘난징대학살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12월 제2역사당안관(기록보관소)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난징대학살과 관련한 특별한 DB를 구축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전국에 있는) 많은 역사당안관이 공동으로 이 DB를 구축하고 (완성되면) 국내외에 공개될 것”이라며 “이 DB는 사람들이 그 역사적 재앙을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난징대학살은 중일전쟁 당시인 1937년 12월 13일부터 다음해 1월까지 국민당 정부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이 30만 명 이상(중국 측 추정)에 달하는 중국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유네스코에 제출된 난징대학살 자료는 난징 시민과 무장해제된 중국 군인들을 학살한 사실과 1945년 이후 전쟁범죄자의 재판 관련 기록물을 아우른



살아남은 자의 초상

11일 중국 난징에 있는 ‘난징대학살 추모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벽에 걸린 생존자들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다. 일본은 이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확정되자 “극도로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유네스코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이런 태도에 지난 1일 유네스코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중국은 이날 관영매체를 통해서도 일본의 태도를 거듭 비판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사설에서 일본

의 반응은 “왜곡된 역사인식”을 보여준다는 증거라며 “일본이 스스로 유네스코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국제기구의 결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2천하를 도박한 거상 여불위

여불위(呂不韋)는 전국시대 말, 천하의 거상이었다. 하남성 양척 출신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 천금의 재산을 모았다. 그의 과감한 베팅이 없었다면 진시황의 천하 통일은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조나라 수도 한단에 인질로 가 있는 진 왕족 자초와의 만남이 그를 역사의 전면에서 등장시켰다. 자초를 보자 “이 귀한 물건을 사 둘만 하다. 당신의 가문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지원 의사를 밝힌다. 자초는 “당신 계획대로 된다면 진나라를 그대와 함께 나누어 가지도록 하겠소”라고 화답한다. 그는 진 태자 안국군의 처 화양부인을 설득하여 자초를 양자로 만든다.

56년 집권한 소양왕이 죽자 안국군이 효문왕으로 즉위했으나 3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자초가 뒤를 이으니 장양왕이다. 장양왕도 3년만에 병사하니 13세 아들 영정이 제왕의 자리에

왕의 중부로서 재상의 지위에 오르 고 낙양의 10만 호를 식읍으로 거느렸다. 유일한 근심거리인 진왕의 생모인 태후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었다. 신하로서 태후와 정을 통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모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그는 꾀를 부려 노애라는 젊은 이를 태후에게 붙여주었다. 둘 사이에는 두명의 아들이 생겨났고 노애는 태후의 총애에 힘입어 권력을 농단했다. 집 문전에 벼슬하려는 빈객들이 줄을 섰다고 한다. 진왕 9년 태후와 노애의 관계를 왕에게 밀고하

진시황 친부說... 천하 호령했지만 권불심년

울랐다. 후일의 진시황이다. 진시황이 사실은 여불위의 소생이라는 설이 분분했다. 사마천이 쓴 사기 <진시황 본기>에는 이에 관한 기록이 없지만 <여불위 열전>에는 그의 아들로 되어 있다. 자초가 여불위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가 총애한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 아내로 삼는다. 그녀는 여불위의 아이를 가진 사실을 숨긴채 진시황을 낳았다고 한다. 영정이 진왕에 오르자 그는 재상이 되어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진왕은 그를 중부(仲父)라 부르며 국사를 위임했다. 신분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발탁했고 군사력을 대폭 강화했다. 진왕이 22세 진정할 때까지 국력 신장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는 사태가 일어났다. 노애가 자신의 아들을 옹립하여 나라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였다. 진왕은 신속히 노애의 반란을 진압했다. 노애를 참형에 처하고 태후가 낳은 두 아들도 참수하였다. 태후는 유폐시켰고 여불위는 재상의 지위를 박탈해 하남 지방으로 추방하였다.

그는 “진의 재상인 내가 약소국의 공자들에게 질 수는 없다”며 천하의 인재들을 초빙했는데 그 수가 삼천을 넘었다. 그는 식객들에게 각각 보고 들은 것을 쓰게 하여 20여만 자에 달하는 <여씨춘추>를 출간하였다. 책이 완성되자 수도 함양의 시장 문앞에 진열하고 “전 26권 가운데 한 글자라도 잊어버거나 꺾을 수 있는 자에게 천금의 상을 내리겠다”는 현상금을 걸었다. <여씨춘추>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다.

귀양간 여불위에게 빈객, 호상, 제후 등 많은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반란설이 끊이지 않았다. 천정에 나선지 얼마 안돼 경향이 일어난 진왕으로서는 난감한 일이었다. 자신을 왕위로 오르게 한 생부의 문제였다. 냉혹한 진왕은 여불위에게 다음과 같은 친서를 보냈다. “그대가 진나라에 무슨 공로가 있기에 진나라가 그대를 하남에 봉하고 10만 호의 식읍을 내렸소? 그대가 진나라와 무슨 친족 관계가 있기에 중부라고 불리오? 그대는 가족과 함께 촉망으로 옮겨 살도록 하시오.” 여불위는 이 편지를 보자 독주를 마시고 죽는다. 진왕 12년(BC225)의 일이다.

그는 대국적인 안목을 가지고 큰 계획을 부릴 줄 아는 인물이었다. 남다른 수완으로 천하를 좌우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진시황에게 너무나도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 이유다. <초대대학교 총장>

獨 폭스바겐 도시 ‘구조조정 공포’

본사 위치한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 사태로 뒷서리를 맞은 독일 도시가 있다. 폭스바겐 본사와 공장이 위치해 ‘독일의 디트로이트’라 불리는 볼프스부르크다.

베를린에서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볼프스부르크는 12만 명의 인구 중 7만 2000 명이 폭스바겐에서 일한다. 도시 예산 3분의 1이 폭스바겐 법인세로 충당되고 은행과 식당, 호텔, 정육점에도 폭스바겐 로고가 붙어있다. 유럽프로축구 챔피언스리가 열리는 경기장 이름도 ‘폭스바겐 아레나’다. 축구팀 VfL 볼프스부르크도 폭스바겐에서 상당한 후원을 받고 있다.

볼프스부르크는 폭스바겐의 성장세에 힘입어 2013년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선정되며 승승장구했지만 이번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치명타를 입을 위기에 처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볼프스부르크 현지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공포와 분노, 불신이 뒤섞여 있다고 전했다. FT는 폭스바겐이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그 이상의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표적수사’를 의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현지 폭스바겐 자동차 박물관 아우토슈타트의 직원은 “미국에서 엄청난 오염이 발생하는데 (미국은) 그런 건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면서 “(전화 스위치 문제를 일으킨) 제너럴모터스(GM)와 달리 우리는 최소한 사람을 죽이진 않았다”고 화를 냈다.

볼프스부르크 지역은 1930년대 아돌프 히틀러가 국민차 ‘폭스바겐 비틀’ 생산을 지시하면서 자동차 공업 중심지로 떠올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볼프스부르크로 명명됐다. /연합뉴스

사우디 성지순례 사망자 사상 최대

AFP “각국 자체 조사 최소 1535명”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 메카에서 정기 성지순례(하지) 기간 발생한 압사 사고의 사망자 수가 사상 최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AFP통신은 11일 이번 성지순례에 참가한 각국이 자체 조사해 발표한 사망자 수를 합산한 결과 최소 1535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성지순례와 관련된 사건·사고 중 지금까지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1990년 압사사고(1426명)보다 109명이 더 많다.

각국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수를 보면 이란이 464명으로 가장 많고 이집트 177명, 인도네시아 120명, 인도 101명, 나이지리아 99명, 파키스

탄 87명, 방글라데시 79명, 말리 60명 등이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사망자수 769명을 고수하고 있다. 사우디는 국별별 사망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AP통신도 9일 각국 정부의 사상자 발표치를 고려하면 이번 참사의 사망자 수가 최소 1399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은 사우디가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1100명의 사진을 제공했다고 밝혀 인명피해 축소 의혹이 가열됐다.

사우디 정부는 사망자수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건물 임대

남구 송하동 광주대입구
센트럴예식장 건물
토지 2211m2(668평)
건물 4218m2(1276평)

* 병원용도에 따라 10년이상 임대보장
* 파격적인 임대조건(보증금 및 차임)

문의 010-7570-7525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열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